

한양대학교 2010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2차

인문계

논술

수험번호 () 응시번호 () 성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150분 안에 [문제 1]과 [문제 2]의 답안을 작성하시오.
2.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3. 수정 시 검정 볼펜으로 줄을 긋고 다시 쓰시오.
4.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5.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 답안을 검정 볼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 4)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제 1] 글 <가>에 나타난 두 나라의 이민·동화 정책을 비교하고, 글 <나>를 바탕으로 그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하시오. (400~500자, 30점)

<가>

식민지 경영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은 이민·동화의 정책 추진에 있어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과거 식민지 구성원을 강력한 동화 정책으로 통치했던 프랑스는 전후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이들을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적극적 동화 정책을 일찌감치 시행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인이 되었고, 자국에서 개최된 1998년 월드컵에서 식민지 출신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프랑스는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자국 문화의 우수성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흡수·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그러한 정책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이슬람계 여성의 학교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최근에는 리옹을 중심으로 거리에서도 히잡 착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슬람계 이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이슬람의 고유한 문화를 뿌리째 뽑으려는 이러한 태도가 이슬람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여 그들의 적대적인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05년 11월에 발생한 프랑스 소요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영국 역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이민자들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영국의 동화 정책은 식민지 통치이념을 따르는 소극적 동화의 형태를 띤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영국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영국은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교사 같은 전문직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민법 개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망명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의 추방 조치를 강화하고,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등록을 실시할 방침이다. 영국 국민들은 서구 사상과 문화의 요람 역할을 한 영국의 성격이 잠식될 위기에 처해 있고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영국적 정체성 상실에 대해 과민하게 표출되는 이러한 반응은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나>

지금 우리는 문화의 경계가 불분명한 '혼종(hybridity)'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는 늘 교차하고 섞이는 가운데 형성된다. 문화의 혼종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문화란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어서 우열을 나눌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제공하고, 정체성이란 단일한 형태로 영구 지속되기보다 이질적인 문화가 충돌하면서 변형을 겪는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혼종에 대한 인식은 '중심'의 원리를 뒤집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 고급문화의 권위와 문화적 위계를 해체하고, 문화적 가치 판단에서 '주변'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며, 대중문화의 요소들을 또 다른 미학과 언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헤아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나라가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이민의 역사를 안고 있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문화적 혼종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로 와 닿는다.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단일하고 고정된, 순수한 기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화의 차이는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차이를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위한 근거로 내세우지 않는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모색하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길찾기는 반드시 추구되어야 한다.

[문제 2] 아래 주어진 1, 2, 3, 4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글 <가>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하고 글 <다>의 '경우 (1)'이 추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1300~1500자, 70점)

1.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2. 글 <가>와 <나>의 핵심 내용과 그 관계를 요약하시오.
3. 글 <다>의 세 가지 경우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시오.
4. 글 <라>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가>

시장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격이 움직이면서 노동 및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이룬다. 즉,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도를 높이고, 시장은 스스로 효율성을 발휘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석탄이든 양철이든 밀이든, 뭐든지 공급부족이 발생하면 단기 재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외계인이 멀리서 관찰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가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개인이 각자 적정한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결과일 뿐이다. 시장의 선택은 찰스 다윈이 밝혀낸 자연의 선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생명체의 자연선택이 적자생존을 통해 진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자연스럽게 방임해두면, 시장은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생명 활동을 통해 사회의 최적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거래는 자발적이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교환이 발생한다.

19세기 이래 다윈의 자연선택과 그에 기초한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작동 원리는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생명체와 시장은 목적과 계획과 안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시장선택의 자생적 질서를 만들면서 진화한다. 수차례에 걸쳐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경제 위기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고 비효율적인 자들의 부채에서 기인했거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집중 투자 때문이었고, 그런 위기는 항상 극복되면서 최적화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은 자연선택적인 작동원리이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190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과점 노동자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뉴욕주의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성인노동자의 노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자유에 대한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간섭이고, 본인과 가족의 부양을 방해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본인과 가족의 부양 및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노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방, 치안, 철도, 운하 등의 공공재를 위한 소비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을 재단하고 시장 종사자들을 통제하면 자연선택이라는 효율성이 붕괴된다.

<나>

다윈은 '적자'가 되지 못하는 개체와 최적화를 이루지 못하는 종의 사례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라는 주장은 다윈의 자연선택이라는 생태적 개념을 인위적인 시장경제의 사회적 관계에 성급히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식민지의 시장을 도태시키는 제국의 시장을 자연스러운 자생적 질서로 합리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자연계의 진화가 도태를 전제로 최적화의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왜곡할 수 있겠는가? 사실 생명체의 세계는 바닥을 향한 거대한 경주의 연속이다. 나무를 생각해보라. 나무가 15미터씩 자라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렇게 자라려면 물과 양분 등 엄청난 자원을 땅에서 저 꼭대기의 이파리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해답은 물론 '나무는 햇빛을 받으려고 애쓴다'이다. 햇빛은 땅 가까이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다른 것들이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는 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다른 모든 나무의 키가 3미터라면 키가 4미터인 나무가 유리하다. 일조량이 이웃 나무보다 많아진다. 따라서 4미터짜리 나무가 슬슬 늘어난다. 그러나 모든 나무가 4미터라면 5미터짜리 나무가 유리하다. 과정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괴테는 독일 속담을 인용해 "나무가 아무리 자란다고 하더라도 천국까지 자랄 수는 없다."라고 사회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경쟁이 나무라는 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이다. 나무들이 더 자라려면 결국 지나치게 연약해지거나 양분 공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햇빛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키가 작은 경우보다 좋아진 것이 없다. 신체동작, 의식, 심지어 사회적 능력발달에 관해서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만약 자연선택이 항상 최적화한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한 꺼풀의 부드럽고 균일한 박테리아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생태계의 엄청난 다양성은, 종의 적응도라는 기준에서 자연선택이 최고만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사실상 개체에게 좋은 것이 종 전체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연선택은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은 그것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경쟁력을 획득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자연선택은 경쟁구조와 경쟁방법에 대해 총체적이고 다양한 한계와 엄밀한 환경을 조성한다.

<다>

아래 표를 보면, 사냥꾼 두 사람의 선택의 경우가 나온다. 두 사냥꾼은 덫을 놓는 일로 오후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밀렵을 할 것이냐 하는 결정에 직면해 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덫을 놓는다면 포획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덫을 놓는데 다른 사람은 오후 내내 밀렵을 한다면 밀렵한 사람은 포획량을 세 배로 늘릴 수 있다. 대신 덫을 놓은 사람은 아무 것도 잡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도 밀렵을 하는 수밖에 없고, 두 사람 모두 밀렵을 하면 포획량은 훨씬 감소하여 무엇을 위해 사냥을 하는지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위한 경쟁을 쫓아간다는 욕구의 선택을 따르면 '경우 (3)'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경우	두 사냥꾼의 행위의 조합	사냥 결과
(1)	두 사냥꾼 모두 덫을 놓을 때	각각 2마리
(2)	한 사냥꾼은 밀렵을 하고 다른 사냥꾼은 덫을 놓을 때	밀렵 사냥꾼 3마리 덫 사냥꾼 0마리
(3)	두 사냥꾼 모두 밀렵을 할 때	각각 1마리

<라>

시장의 시스템을 자생적 질서로 합리화하려면, 적자생존이 자연선택에 의해 이룩된다는 선거 구호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시장은 인위적인 산물이고, 그 안과 밖에서 경쟁하는 인간들은 동종 내 개체 간 경쟁에 몰두한다는 사실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적도 없고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붕괴된 적도 없다. 자연계에서도 동종 내 경쟁에 몰입하여 한계를 넘는 욕구에 집착할 때, 집합적 자멸을 자초할 수 있는 현상은 상당부분 관찰된다.

시장은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하며, 다양한 한계와 엄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그 규칙을 강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을 위한 세밀한 실행 방안이 필수적이다. 첫째, 농작물을 옆집에서 훔칠 수 있다면, 누가 스스로 농사를 짓겠는가? 둘째, 합의한 노동이나 용역의 가격을 누군가가 맘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누가 노동이나 용역을 제공하겠는가? 시장의 자유를 신봉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자동차는 중국에 브레이크가 고장 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진화체계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질서나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간은 외부 요인 탓만 하면서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자기 불행의 입안자라는 사실을 무시한다.